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시마네 이모저모

Vol. 69

願いを込める手しごと

願いを込めたミツトリヒトギと幸せになる「三つの秘訣」

画竜点睛

願いを込めて獅子頭を製作し、50年

소원을 담은 수세공

소원을 담은 미쓰토리히토기와 행복해지는 「세 가지 비결」

화룡점정 (畫龍点睛)

50년의 장인정신, 소원을 담은 사자탈 제작





소원을 담은 미쓰토리히토기와 행복해지는 「세 가지 비결」

리 명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의 느낌은, 아마 ‘미쓰토리히토기’의 디자이너 다베이 마키코씨가 말한 것처럼, 설명이 없어도 잘은 모르지만, 굉장하다고 압도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상냥함, 반 고흐의 ‘해바라기’에서 열정과 희망을 느낀다. 미쓰토리히토기가 디자인한 실크스크린 작품을 보면 생물이 뿔어 나가는 힘에서 기운과 용기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우리들은 이즈모시에 있는 고민가를 개조한 스튜디오를 방문하였다. 다베이 마키코 씨에게 작품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면 알수록 다베이씨의 제작 활동의 원점에서도, 경험과 전망에서도 소원을 담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이것이 다베이씨의 행복 비결일 것이다.

비결 1: 어디까지 나아가도, 초심을 잃지 않는다

와사비, 생강과 차조기, 세 가지 향신료를 같이 내놓으면,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슬슬 ‘회’가 나오겠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양파, 산초와 고추를 추가하면 동양의 ‘약식동원(藥食同源)’이 떠오른다. 다만, 가정 요리에서 자주 보는 토핑 같은 식물은, 다베이씨의 ‘야쿠미’라는 작품 속에서는, 문예적이고 독특한 주역이다. (번역주: 야쿠미(藥味)란, 음식에 곁들이는 향신료나 양념, 고명을 뜻함) 이 작품은, 반복 배열로 길이 25미터 원단에 크기가 다른 야쿠미 재료 10종류가 균형 있게 배열되어, 야쿠미 재료 본래의 색이 아닌, ‘검정, 노랑, 회색’의 색 배합으로 염색되어 멋있는 분위기에 약간의 귀여움이 있다. 이 젠더리스 패션 같은 디자인은 일석이조(一石二鳥), 즉 미쓰토리히토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물의 강력함이라는 모티프에 합치하며, 남성도 또한 사용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 원단이 완성되기까지 컨셉이나 모티프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밀그림을 그리고, 염색 등, 많은 공리를 하여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 원단으로 만든 아이템은 머리끈, 파우치, 가방, 봉제 인형 등 다양하다. 원단을 자르는 방법과 봉제 방법에 따라 상품의 디자인은 달라진다. 여러 마음을 담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베이씨는 전시되어 있는 오리지널 상품을 보면서 “모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쓸데없는 것이 없다.”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대학 시절, 졸업 작품으로 커다란 천을 직접 크게 염색한 것. 미쓰토리히토기에서 만든 제품은 아니지만, 그 작품이 저에게는 방향성을 정해준 가장 열쇠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돌아보면, 처음에 절친한 친구 야나기모토 마호 씨의 격려로 두 사람이 협업하여 미쓰토리히토기를 도쿄에서 창립하여 10년째 가까이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시마네로 이사했다. 그리고, 시마네현 이즈모시에 있는 고민가에서 사업도 가정도 양립하여 또 하나의 10년간을 경험했다. 작업의 장소는 바뀌었지만, ‘생물의 힘을 빌려, 보는 사람의 힘이 되기를’이라고 하는 소원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도쿄보다 수백 배나 자연에 둘러싸여, 계절을 의식하고, 평소 보는 것 중에서 매력을 끌어내는 아이디어를 항상 받는 상태에 있다. 다베이씨가 자택의 정원에 기르고 있는 키위 등을 모티프로 작품을 생생하게 만들고, 점점 차오르는 행복감은 생활에 가져다주는 보상임이 틀림없다.

비결 2: 가장 큰 소원은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미쓰토리히토기의 수작업 중에서,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의 연을 완벽하게 맺어주는 것은, 큐피드가 아니라 의뢰인의 소원이다. 디자인은



시미트리히토기를 도쿄에서 창립, 10년目近くなった時, 가족と一緒に島根に引っ越した。そして、出雲にある古民家で事業も家庭も両立するもう一つの10年間を経験した。作業の場所は変わったが、「生き物の力を借りて、見るひとの力になるもの」という願いを変えていない。むしろ、東京より何百倍も自然に囲まれて、季節を意識し、普段目にしていないものの中から魅力を引き出すアイデアが降ってくるような状態に常にある。田部井さんが自宅の庭に育てるクワイなどをモチーフとして作品を生き生きとさせ、だんだんと満ちてくる幸福感は、生活にもたらされたご褒美に違いない。

비결 2:最も大きな願いは、他人の願いを叶えることだ

미쓰토리히토기의 수작업 중에서, 디자인과 실용적인 기능을 완벽하게 엮어주는 것은, 큐피드가 아니라 의뢰인의 소원이다. 디자인은



雲の空というデザインだが、モノによってイメージが異なる。トートバッグとなると、着物の姿で持ちながら青石畳を散策する雰囲気になり、傘となると、雨の日も晴れやかな気分になる。また、収納機能を求めても、使う人に応じて別々に作るようにする。例えば、デートに行くお洒落な女性にとって、カード、スマートフォン、鍵、お札など細かいものが全部一つ小さくまとまるポーチが似合う。それに対して、赤ちゃんがいる母親にとって、両手を空けて赤ちゃん用のお出かけセッ

願いを込めたミットリヒトギと幸せになる「三つの秘訣」

李 孟群

芸術作品を鑑賞する時の感じは、たぶんミットリヒトギのデザイナー田部井眞子さんが言った通り、説明がなくても、よく分からないけれど、すごいと圧倒されるものである。例えば、「モナリザ」に神秘的な優しさを感じる、「ヒマワリ」から情熱と希望をもらえる、ミットリヒトギがデザインしたシルクスクリーンの作品を見ると、決まって生き物が伸びていく力で元気と勇気をもらえる。私たちは出雲市内にある古民家を改装したスタジオを訪ね、田部井眞子さんから作品の物語を聞き、幸せに思っている。知れば知るほど、田部井さんは制作活動の原点でも、経験と展望においても、ずっと願いを込めて前に進んでいるのだと感じる。それが田部井さんの幸せの秘訣なのであろう。

秘訣一:どこまで進んでも、初心を忘れない

ワサビ、生姜とシソという三つの香辛料を一緒に出されると、和食が好きな人はたぶんそろそろ「刺身」が来るかなと思うかもしれない。しかし、玉葱、山椒と唐辛子を加えると、「薬食同源」が思い浮かぶであろう。ただし、その家庭料理でよく目にするトッピングのような植物は、田部井さんによる「薬味」という作品の

中では、文芸的かつ独特な主役となっている。この作品は、「リピート」の手段で長さ25mの生地に大きさが違う10種の薬味がバランスよく並べられ、薬味本来の色ではなく、「黒、黄、グレー」の色合わせで染められたものだから、カッコいい雰囲気は少し可愛さがある。このジェンダーレスファッションのようなデザインは一石二鳥、つまり、ミットリヒトギが表現したい生き物の力強さのモチーフに合致し、かつ男性にも使いやすいということである。この生地ができるまで、コンセプトやモチーフを繰り返して考え、下絵を描き、また染め上がりなど、たくさん工夫をして、3~4ヶ月くらいかかったそうである。この生地で作ったアイテムは、ヘアゴム、ポーチ、バッグ、縫いぐるみなど様々ある。生地の切り方や縫い方によって、商品のデザインは異なる。散々思いを込めて作ったものだから、田部井さんは展示されているオリジナル商品を見ながら、「すべて愛着があるもの、無駄なものがない」と誇りを持って言った。しかし、一番好きな作品と言えば、「それは大学の時の卒業制作で、大きな布を自分で大きく染めたもの。ミットリヒトギの時の物ではないけど、それが自分にとって方向性を決める一番鍵になる作品でした」と言った。振り返ると、最初が親友の柳本真穂さんの励みで二人がコラ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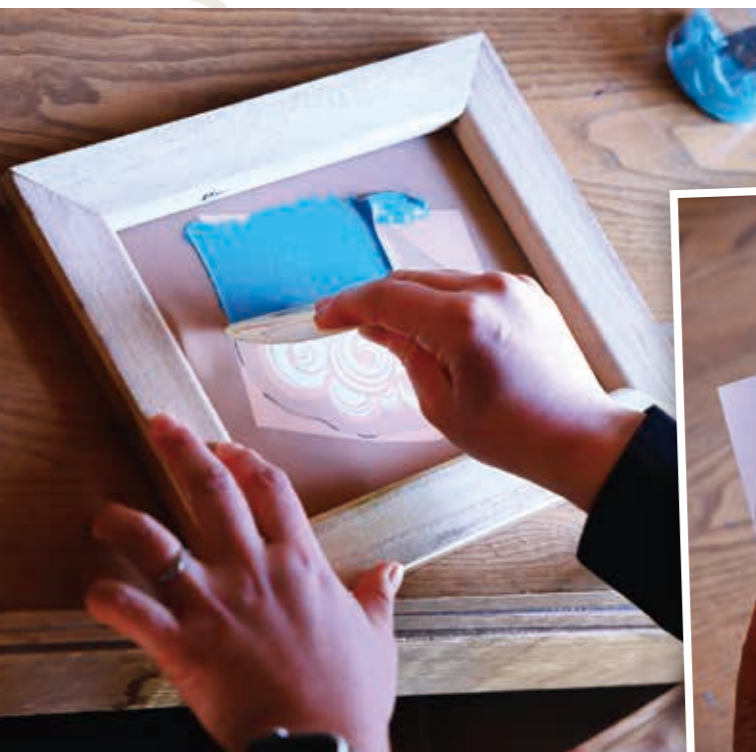
제품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진다. 노란 구름이 떠 있는 이즈모의 하늘이라는 디자인은 토트백이 되면, 기모노 차림으로 들고 푸른 돌이 깔린 옛길을 산책하는 분위기가 되고, 우산이 되면, 비 오는 날에도 화창한 기분이 든다. 또한, 수납 기능이 필요해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데이트하러 가는 세련된 여성에게는 카드, 스마트폰, 열쇠, 지폐 등 세세한 것이 전부 하나로 작게 정리되는 파우치가 어울린다. 반면 아이가 있는 어머니에게는, 양손을 비우고 아기용 나들이 세트가 들어가는 마더 백을 들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한 개의 원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프로 장인에게 맡기면 문제였다. 다베이씨는 이에 대해 “의뢰인의 생각이 많아서, 긴 시간에 걸쳐 회의하더라도, 열정이 있다면 매우 기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현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클라이언트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기업의 의뢰가 있으며, 전시회나 로고 디자인을 제작한 적도 있다. 매년 개최되는 ‘마스에 수등로’ 축제에서 2014년부터 수많은 등불을 제작하여 환상적인 밤을 장식해 오고 있으며, 신사나 절을 참배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과 소원의 여행을 기록할 수 있는 고슈인 수첩(朱印帳:일본의 신사나 절에 방문하여 날인을 받는 수첩)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

비결 3: 소원을 씨앗처럼 뿌려, 보다 깊고, 넓고, 따뜻하게

고민가의 거실에, 실크스크린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 다베이씨가 20년 정도 만들어온 스크린이 모아져 있다. 다베이씨는 인쇄가 가장 간단한 수작업일 것이라고 말하며 시범을 보여주었다. 블루 잉크를 밀어내고, 모양이 눈에 보이는 순간은, 마술을 보는 것처럼 즐거웠다. 제자를 만났다고 묻자, 선생님은 “도쿄 시절부터 미술 대학에 지망하는 중학생을 대학 수험까지 가르쳤습니다. 결국 꿈을 이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도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라고 즐겁게 이야기했다. 이어 “만약에 시마네현에도 미술의 길로 가고 싶은 아이가 있다면, 대환영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가, 어렸을 때의 저처럼 자신 속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마음을 매우 소중히 하고, 솔직해졌으면 하나까요.” 다베이씨가 다음 세대가 계승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단지 기술이나 스타일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좋아하는 것에 일관단심으로 계속해 나가는 정신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행복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2024년 포부에 대해서 다베이씨는 “미쓰토리히토기가 씨앗처럼 살아가는 힘을 뿌려, 더욱 많은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뻗어,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쓰토리히토기는, 디자인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시마네를 알고, 좋아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겨울의 맑은 날, 다베이씨의 가게 안에서 오야마 산의 윤곽이 뚜렷이 보인다. 한낮의 햇살 속에서 그네를 흔드는 바람은 황실리화의 향기를 실어 나른다. 금, 토요일에는 가게에서 런치도 제공한다. 먼저 배가 만족할지, 아니면 다베이씨의 작품에 열큰하게 취할지 기대해 보자! 미쓰토리히토기가 소원을 가지고 행복을 계속하는 한 행복은 계속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트가 들어 마저 백을 갖추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의 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프로 장인에게 맡기면 문제였다. 다베이씨는 이에 대해 “의뢰인의 생각이 많아서, 긴 시간에 걸쳐 회의하더라도, 열정이 있다면 매우 기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현시키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클라이언트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기업의 의뢰가 있으며, 전시회나 로고 디자인을 제작한 적도 있다. 매년 개최되는 ‘마스에 수등로’ 축제에서 2014년부터 수많은 등불을 제작하여 환상적인 밤을 장식해 오고 있으며, 신사나 절을 참배한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과 소원의 여행을 기록할 수 있는 고슈인 수첩(朱印帳:일본의 신사나 절에 방문하여 날인을 받는 수첩)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다.

비결 3: 소원을 씨앗처럼 뿌려, 보다 깊고, 넓고, 따뜻하게

고민가의 리빙에, 실크스크린이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있어, 다베이씨가 20년 정도 만들어온 스크린이 모아져 있다. 다베이씨는 인쇄가 가장 간단한 수작업일 것이라고 말하며 시범을 보여주었다. 블루 잉크를 밀어내고, 모양이 눈에 보이는 순간은, 마술을 보는 것처럼 즐거웠다. 제자를 만났다고 묻자, 선생님은 “도쿄 시절부터 미술 대학에 지망하는 중학생을 대학 수험까지 가르쳤습니다. 결국 꿈을 이뤄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도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라고 즐겁게 이야기했다. 이어 “만약에 시마네현에도 미술의 길로 가고 싶은 아이가 있다면, 대환영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가, 어렸을 때의 저처럼 자신 속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마음을 매우 소중히 하고, 솔직해졌으면 하나까요.” 다베이씨가 다음 세대가 계승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단지 기술이나 스타일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좋아하는 것에 일관단심으로 계속해 나가는 정신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행복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2024년 포부에 대해서 다베이씨는 “미쓰토리히토기가 씨앗처럼 살아가는 힘을 뿌려, 더욱 많은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뻗어,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쓰토리히토기는, 디자인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시마네를 알고, 좋아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자가 있다면, 대환영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아이가, 어렸을 때의 저처럼 자신 속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마음을 매우 소중히 하고, 솔직해졌으면 하나까요.” 다베이씨가 다음 세대가 계승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단지 기술이나 스타일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좋아하는 것에 일관단심으로 계속해 나가는 정신이다.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행복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2024년 포부에 대해서 다베이씨는 “미쓰토리히토기가 씨앗처럼 살아가는 힘을 뿌려, 더욱 많은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뻗어,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쓰토리히토기는, 디자인으로 더 많은 사람이 시마네를 알고, 좋아할 수 있도록 하고 싶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겨울의 맑은 날, 다베이씨의 가게 안에서 오야마 산의 윤곽이 뚜렷이 보인다. 한낮의 햇살 속에서 그네를 흔드는 바람은 황실리화의 향기를 실어 나른다. 금, 토요일에는 가게에서 런치도 제공한다. 먼저 배가 만족할지, 아니면 다베이씨의 작품에 열큰하게 취할지 기대해 보자! 미쓰토리히토기가 소원을 가지고 행복을 계속하는 한 행복은 계속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화룡점정 (畫龍點睛)

먼 쥐안

인간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부딪혀 예술을 창조한다. 자신의 감정과 사상, 종교 등을 예술 창작에 불어넣음으로, 시대의 분위기에 따른 작품이 되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요구되는 작품으로 개화한다.

시마네현 마쓰에시에 혼잡의 흐름을 타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취미와 마음에 충실한 것을 선택하여, 다루마 장인이 된 호리에 쓰토무 씨라는 장인이 있다.

호리에 씨의 집에 들어가면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높이 50센티미터 정도의 거대한 다루마다. 한눈에 보고, 손이 많이 가고, 도전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들어보니, 호리에 씨의 결혼 기념으로 스승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다. 다루마에는 손 글씨가 즐비했는데, 잘 보면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자유분방한 아이들의 축복 메시지가 잔뜩 적혀있었다. 이 다루마를 통해 호리에 씨의 행복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져 온다. '선물은 소소하지만, 그 마음은 따뜻하다'라는 중국의 속담은 마치 이 다루마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1층의 한구석에 일본식 방이 있다. 호리에 씨가 '다루마'를 제작하고 있는



画竜点睛

人間は自らの感情を表現するために、言葉で言い表すことができないことにぶつかって芸術を生み出すものである。自らの感情や思想、宗教などを芸術創作に取り入れることで、時代の空気に沿った作品となり、人々に愛され、求められる作品として開花する。

島根県松江市に、雑踏の流れに乗らず、その代わりに、自分の趣味と心に忠実であることを選び、だるま職人になった堀江努さんという職人がいる。

堀江さんの家に入ると、まず目に飛び込んでくるのが、高さ50センチほどの巨大なだるまだ。一目見て、手間がかかり、チャレンジ的な仕事だとわかる。聞けば、堀江さんの結婚の記念に師匠から譲り受けたものだという。だるまには、手書きの文字が並んでいるが、よく見ると家族や友人、さらには自由奔放な子供たちからの祝福の言葉がたくさん書かれており、このだるまを通して堀江さんの幸せを願い、楽しみにしている人たちの気持ちが伝わってくる。「贈り物はささやかでも、その気持ちはあたたかい」という中国のことわざは、まさにこのだるまの意味を表現しているだろう。

家の奥に入ると、1階の一角に和室がある。堀江さんが「だるま」を制作しているアトリエだ。赤から金、黒目が入っているものから入っていないものまで、大小さまざまな色とりどりのだるまが所狭しと並んでいる。和室の温度と湿度



아틀리에다. 빨강부터 금, 까만 눈이 그려 넣어져 있는 것부터 없는 것까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다루마가 옹기종기 진열되어 있다. 다다미방의 온도와 습도도 더욱 정밀한 다루마를 탄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아틀리에에는 물감, 붓,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 반완성품이 넘쳐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순서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있는 모든 것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안달이 났다.

호리에 씨가 다루마 제작에 임한 여러 가지 이유는 이미 예상하였지만, 취미를 평생의 일로 만들었다고 듣고 감동했으며,

門 娼

も、より精緻なダルマを生み出すために意図的に保たれている。アトリエには絵の具、筆、何も色付けがされていないもの、半完成品があふれているが、また不可解な順序があるようで、ここにあるすべてのものと主人についての話を聞きたくてたまらなくなる。

堀江さんがだるま制作に取り組んださまざまな理由はすでに予想していたとはいえ、趣味を一生の仕事にしたと聞いて感動し、アーティストの比類ない能力と忍耐力にやはり驚かされた。

だるまは仏教に起因し、達磨法師が座禅を組む姿勢を模した魔除けの品として生まれたもので、邪気を払うとされることから、当初から宗教的な意味合いが強かった。社会の発展とともに、だるまは徐々に装飾品の一種へと進化し、眉と頬は「鶴」と「亀」をイメージしたものが多く、「鶴」は縁起を、「亀」は長寿を表し、現代のだるまは祈願のための縁起物としての意味合いが強くなっている。

芸術の創造には絶え間ない革新と変化が求められる。堀江さんの「出雲だるま」の顔は「龍神」、「勾玉」、「国引き物語」をイメージしたデザインが特徴である。たくさんのだるまの中で、特に注目に値するのは、堀江さんが「神在だるま」を生み出したことである。島根県の出雲大社が古くから全国的に名を馳せていることから、島根県には「神在(じんざい)餅」や「神在(ぜんざい)だるま」



아티스트에 비해 데 없는 능력과 인내력에 역시 놀랐다.

다루마는 불교에서 기인하여, 달마(達磨) 법사의 좌선 모습을 본뜬 부적 같은 물건으로 태어난 것으로,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다. 사회의 발전과 함께, 다루마는 서서히 장식품의 한 종류로 진화하여 눈썹과 볼은 “학”과 “거북이”를 형상화한 것이 많고, “학”은 운수를, “거북이”는 장수를 나타내며, 현대의 다루마는 소원을 위한 행운을 비는 물건으로의 의미가 강해지고 있다.

예술의 창조에는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가 요구된다. 호리에 씨의 ‘이즈모 다루마’의 얼굴은 일본의 용신 ‘류진(龍神)’, ‘곡옥(勾玉)’,



など、神在からの派生物も多いように思う。それは縁起を担ぐだけでなく、地域の特色を際立たせ、地元への恩返しもあるだろう。また、堀江さんの温厚で寛大なイメージを思い浮かべると、「だるま」制作における堀江さんの影響なのか、堀江さんのイメージが作品にマッピングされ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が、作者と作品との間にある共鳴を感じる。これはまさに運命の職なのだろう。

だるまの右目を黒いペンで描きながら願い事をすると、だるまのご加護で願いが叶うと言われているので、見学の最後に運良くとても素敵なだるまのプレゼントをもらった。堀江さんの指導のもと右目を描き、機会があれば左目も一緒に描いてもらおうかどうか躊躇しているうちに、堀江さんはすでにだるまの制作工程を始めていた。堀江さんが集中してペンを走らせる姿は、中国の詩人、張雨が書いた「木工の名や玉工の彫りは伝えられ、巧みな技は天に勝る。」のように匠の心と奇想があって、美しいものが作り出せるのだろう。天の職人技のように精巧な言葉でも、時にはその雰囲気や正確に表現できないことがあることがわかった!

‘구니비키 신화’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많은 다루마 중에서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호리에 씨가 ‘젠자이(神在) 다루마’를 탄생시킨 것이다. 시마네현의 ‘이즈모타이샤’ 신사가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음력 10월, 가미아리즈키(神在月, 신이 있는 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에서, 시마네현에는 가미아리즈키와 한문이 같은 젠자이(神在)에서 파생물도 많은 것 같다. ‘젠자이 떡(神在餅:일본식 단팥죽에 들어가는 떡)’이나 ‘젠자이 다루마’ 등이 그 예이다. 그것은 행운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을 두드러지게 해, 지역에 보답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번역자 주: 일본에는 음력 달의 별명이 있는데, 보통 음력 10월은 간나즈키<神無月, 신이 없는 달>로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 전국의 신은 음력 10월이 되면, 모두 이즈모타이샤에 모여, 인간의 연을 맺어주는 회의를 한다고 한다. 이에, 음력 10월에 모든 신사에는 신이 없기에 신이 없다는 의미의 간나즈키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즈모 지역에는 모든 신들이 모여있기에 신이 있다는 가미아리즈키<神在月>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호리에 씨의 온후하고 관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다루마’ 제작에서 호리에 씨의 영향인지, 호리에 씨의 이미지가 작품에 맵핑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자와 작품과의 사이에 있는 공명을 느낀다. 이것은 마치 운명의 직업인 것 같다.

다루마의 오른쪽 눈을 검정 펜으로 그리면서 소원을 빌면, 다루마의 가호로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운 좋게 견학 마지막에 매우 멋진 다루마를 선물 받았다. 호리에 씨의 지도 아래 오른쪽 눈을 그렸고, 기회를 보면서 왼쪽 눈도 함께 그려달라고 할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호리에 씨는 이미 다른 다루마 제작 공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호리에 씨가 집중하고 펜을 놀리는 모습은, 중국의 시인, 장우(張雨)가 쓴 시, ‘목공(木工)의 이름과 옥공(玉工)의 조각은 전해지고, 능숙한 기술은 하늘의 신보다 뛰어나다’와 같이 장인의 마음과 기상이 있어,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하늘의 장인 기술과 같이, 때로는 정교한 말로도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리할 때 참고도 됩니다.

사자탈의 형태, 얼굴과 표정, 색은 지역과 신사마다 달라, 각각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부분의 털은 말 갈퀴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백색, 흑색, 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아의 모양과 색, 머리 부분의 머리카락 등의 조합에 따라 신사 각각 독자적인 사자탈의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지역마다 다른 사자탈의 개성을 형성하여, 축제와 행사에서 지역 문화나 전통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즈모 사자탈은 전통 공예이며, 옛날부터 정해진 얼굴이 있지만, 최근 일반 사람들이 주문할 때 얼굴을 바꾸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카오 씨에 의하면 사자탈을 제작할 때, 가장 어려운 공정의 하나는 눈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동자는 매우 둥글고 부드럽게 마무리해야 하고, 그것을 낫쇠 판에 붙여야 합니다. 눈동자를 붙인 낫쇠 판을 사자탈의 눈 모양에 딱 맞게 맞도록 박아 넣는 것을 나카오 씨는 해야 합니다. 나카오 씨의 기술과 경험이 이 어려운 공정에서 빛을 발휘하고, 이즈모 사자탈에는 그 독자적인 표정과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 사자탈이 전통적인 자세와 힘찬 풍격을 갖추는데,

숙련된 기교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포기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눈이 나빠져도 계속할 것이다’라는 신념이 나카오 씨의 손에 의해, 이즈모 사자탈 제작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은 사자탈과 여타 공예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2세가 되는 올해도, 나카오씨는 장인으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풍부하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사자탈은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나쁜 기운을 쫓고 액막이의 상징으로 일본의 문화와 정신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전통공예로서의 사자탈은 나카오 씨의 신념이 담겨, 소원과 희망을 품고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0년의 장인정신, 소원을 담은 사자탈 제작

비앙카 첸

새해나 축제 때 나쁜 기운을 쫓기 위해 액막이를 하기 위해 추는 사자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자탈’입니다. 50년 이상에 걸쳐 나카오 호잔 씨(본명 나카오 요시오)는 열정을 쏟아, 전국에서 유일한 입을 열면 귀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자춤에 쓰이는 “이즈모 사자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뛰어난 공예 기술을 인정받아, 2005년에는 시마네현 향토 공예품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즈모 사자탈 제작은 목재를 엄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5년간 건조하고, 다양한 공정을 거쳐 완성합니다. 매일 8시간, 한 달에서 두 달 걸리는 제작 과정을 거쳐서 가볍고 튼튼한 사자탈이 탄생합니다. 또한, 주문을 받은 사자탈은 반드시 같은 것을 2개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의 작품에 대해 실제로는 두 배의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카오 씨가 매년 같은 것 2개를 만들기 때문에 손님이 고를 수도 있고, 이후에

五獅願

이즈모 사자탈 제작은 목재를 엄선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5년간 건조하고, 다양한 공정을 거쳐 완성합니다. 매일 8시간, 한 달에서 두 달 걸리는 제작 과정을 거쳐서 가볍고 튼튼한 사자탈이 탄생합니다. 또한, 주문을 받은 사자탈은 반드시 같은 것을 2개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의 작품에 대해 실제로는 두 배의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나카오 씨가 매년 같은 것 2개를 만들기 때문에 손님이 고를 수도 있고, 이후에



願いを込めて獅子頭を製作し、50年

お正月やお祭りの際に邪気払いのために舞われる獅子舞。その中でも「獅子頭」が注目を集めています。50年以上にわたり、中尾芳雄さん(彫号：中尾芳山)は情熱を注ぎ、全国で唯一、口を開けると一緒に耳が動く獅子舞「出雲獅子頭」を生み出しました。その優れた工芸技術が認められ、平成17年には島根県ふるさと工芸品に指定されました。

ビアンカ・チャン

出雲獅子頭の製作は木材の厳選から始まり、5年間乾燥させ、様々な工程を経て完成します。毎日8時間かけ、1か月から2か月かかる製作プロセスを通じて、軽くて丈夫な獅子頭が誕生します。また、注文を受けた獅子頭は必ず2つ作るのだそうです。1つの作品に対して、実は2つ分の労力がかかっています。中尾さんが毎回2つ同じものを作ることで、お客さんがどちらかを選ぶことができるし、また将来の修理の際の参考にもなります。

獅子頭の形態、顔や表情、色は地域や神社により異なり、それぞれの独自の特徴を持っています。頭部の毛には馬のたてがみが使われ、一般的に白、黒、茶色になっています。歯の形や色、頭部の髪などの組み合わせによって、神社それぞれが独自の獅子頭の顔を作り上げています。これらの特徴は、地域ごとに異なる獅子頭の個性を形成し、祭りや行事において地域の文化や伝統を豊かに表現しています。出雲獅子頭は伝統工芸であり、昔からの顔が守られていますが、最近一般の人が注文する際に顔を変えたいと考えることも許容されているそうです。

中尾さんによると、獅子頭を製作する際、最も難しい工程の一つは目を作り上げることだそうです。目玉は非常に丸く滑らかに仕上げなければならず、それを真鍮の板に取り付け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真鍮の板を獅子頭の目

の形にぴったりと合うように打ち込むことが中尾さんには求められます。中尾さんの技術と経験がこの難しい工程で輝き、出雲獅子頭がその独自の表情を持ち、命が吹き込まれます。熟練した技巧が、獅子頭が伝統的な姿勢や力強い風格を備える際に不可欠な要素となっています。

「あきらめることを考えたことない。目が悪くなくても、続ける」という信念が中尾さんの手によって、出雲獅子頭の製作にも反映されています。長年にわたる経験と技術は、獅子頭やその他の工芸品において高い評価を受けています。82歳になる今年も、中尾さんは職人としての情熱を持ち続け、地

元の文化や伝統を豊かに彩り続けています。

獅子頭は単なる工芸品を超え、魔除けや厄払いの象徴として、日本の文化と精神を代表する存在となっています。伝統工芸としての獅子頭は、中尾さんの信念が込められ、願いと希望を持って人々に活気をもたらし、地域の平和と繁栄を祈る大切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https://www.pref.shimane.lg.jp/bunkakokusai/>

시마네 이모저모

편집자: 이정현

발행처: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바랍니다. bunka-kokusai@pref.shimane.lg.jp

発行: 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Felipe Nascimento Donovan Goto Lee Jung-Hyun Bianca Chan Men Juan Li Mengqun